

영암군, 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새청무·영호진미

읍·면 수요조사 통해 농가의견 반영 최종 결정 “신동진 매입 품종 아니니 농가에서 혼선 없길”

영암군이 19일 군청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 선정협의회'를 열고 '새청무'와 '영호진미'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영암군은 읍·면 수요조사 실시해 농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 수요조사에서 2021년부터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영암군이 매입 중인 새청무에 대해서는 선정에 이의가 없었다. 2025년 매입품종의 하나로 결정된 영호진미

는 2024년 매입품종인 '신동진'과 비교 대상에 올랐고, 각 읍·면별 선호도가 같았다. 수요조사 결과, 둘 중 영호진미 품종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열린 협의회에서도 두 품종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고, 밥맛이 좋은 영호진미를 영암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신동진이 2027년부터는 정부 매입 제한 대

상에 포함된다라는 점도 협의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수요조사와 협의회 결정에 따라 새청무와 영호진미를 2025년 공공비축 매입 품종으로 선정하고, 영암군 대표 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신동진은 2025년 매입 품종이 아니니 농가에서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호진미는 재해에 약하고 간척지에서의 재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전남에서 많이 재배되지 않지만, 미질이 뛰어나고 최고 밥쌀 품종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영암=최대호기자



무안 겨울 송어 축제기간 송어 잡기 체험 및 수산물 판매장 성공적 마무리

무안군은 2024 무안 겨울 송어 축제 기간 운영되었던 송어잡기 체험 및 수산물 판매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황금송어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운영되었던 송어 잡기 체험은 총 7회가 모두 매진되며 축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수산물 판매장(김, 감태, 장어)에서도 준비된 수

량이 완판되었고 택배 주문도 성황을 이루어 무안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무안 송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무안 수산물의 판매촉진 활동을 펼쳐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갑진년 새해 '주민건강을 논(論) 하다' 직원 대상 역량 강화·쾌적한 환경으로 주민건강 책임

신안군은 지난 19일, 신안군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보건지소 행정실장·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주요 보건사업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에 추진하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협조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4년 신규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인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 ▲공공심야 약국운영 ▲C형간염 퇴치사업 ▲예방접종 안심지킴이 사업·감염병 예방관리·의약품 관리 철저 등 보건지소 운영에 철저히 하고

2023년~2024년 노후화된 신안군 보건기관 15개소에 '공공기관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주민 보건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신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업무공유를 위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 추진과 보건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제안제도 활성화 위해 시상규모 대폭 확대”

우수제안 선정 시 부상금 최대 300만원

함평군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나서 주목된다. 군은 2024년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제안 및 창의 아이디어제 시상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수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제안의 절차상 단계 도달여부 및 제출 빈도에 따른 차등을 두어 창의 아이디어를 부여하고, 연말에 아이디어 누적점수가 높은 직원들에게는 별도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안 채택 및 실시설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안은 각종 시책이나 제도개선 등 행정능

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중 참여가 가능하고 국민신문고 사이트, 군청 홈페이지,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목포시, 2024 주요 시정보고 및 시민과의 대화 추진

목포시가 오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2024 시민과의 대화 「희망찬 목포 이야기」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23년도 시정 성과와 2024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화는 기존 행사 방식에서 벗어

나 박흥를 시장이 직접 주요 시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희망찬 목포 이야기」라는 주제의 신년 대담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식전행사로는 시립예술단 공연과 모범시민 표창, 시정 홍보영상 시청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 콘텐츠가 준비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맥류 월동기 재배 관리 당부

영광군은 맥류(보리, 밀 등)의 겨울철 저온과 과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 및 답압(눌러주기) 등 포장관리를 당부했다. 영광군의 겨울철(23년 12월~ 24년 1월 현재) 기상분석 결과, 평균기온이 3.5℃로 평년보다 1℃ 전년보다 0.5℃ 높으나, 강수량은

128.8mm로 전년 54.9mm, 평년 72.8mm보다 많이 내려 맥류 월동 중 습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맥류는 1월 최저기온(℃)기준으로 한계기온이 겉보리, 밀 ·10℃, 쌀보리, 청보리 ·8℃, 귀리 ·4℃이며, 이보다 기온이 내려가면 답압(눌

러주기)으로 뿌리의 들뜸을 막아 서릿발과 건조해의 피해를 방지하고, 배수로에 물이 잘 빠지도록 포장 배수구를 25~35cm 내외로 깊게 조성하고 서로 연결하여 습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습으로 황화현상(식물체가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물빠기 작업과 요소 2%액(요소비료 400g/20L, 살포량 100L/10a) 2~3회 살포하여 뿌리 활력을 좋게 해야 한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